

광주는 365일 공사중... 주변 상권 매출 '직격탄'

지하철·아파트 등 도심 곳곳 공사 건축자재·차량 등 인도·도로 점령 주민 통행 불편... 사고 발생 우려 유동인구 줄어 상인들 피해 호소

광주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장의 주변 인도와 도로를 건축자재와 공사 차량이 점령하면서 교통체증 및 보행 불편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광주 도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상권 침체로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9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인도와 차도에는 각종 철판과 목재 등 건축자재가 곳곳에 쌓여 있었고 건설기계가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 길게 늘어선 공사장 고갈(라바콘)이 일부 차로를 통제해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했다.

차로가 줄어들면서 교통정체가 빚어지자 일부 차량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추월하는 아찔한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보행로 역시 마구잡이로 쌓인 공사 자재들에 가로막혀 통행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시민들은 멀리 돌아가거나 차도까지 넘어와 위태롭게 길을 건넜다.

주민 강해든(23)씨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인도 위의 공사 자재와 각종 적치물로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 대형 공사 차량이 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잦아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최근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연결고리가 50m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로는 안전에 대한 불안도 커져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우회해서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은 당초 2023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2026년으로 개통 시기가 연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2단계 구간도 현 상태라면 2029년 개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나들이 명소로 알려져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던 운천저수지는 지하철 공사가 시작된 후 도심 속 '방치된 공원'이 됐다.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난 2020년 운천저수지 밑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위해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고 일부 구간의 산책로와 시설물을 통제한 탓이다. 운천저수지 인근 자영업자들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 저수지의 경관이 망가지고 방문객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천저수지 인근에서 10년 넘게 레스토랑을 운영했다는 문환식(43)씨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 봄철에 '벚꽃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평소 매출도 많게는 50%가량 줄어든 것 같다"며 "운천저수지를 찾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인 듯하다"고 말했다.

문씨는 "공사를 계속 해야 한다면 관리라도 잘 해주어야 하는데 제조 등 공원 관리 빈도가 확연히 줄었다. 출입 통제 펜스도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보이니 펜스를 꾸며 주든지 미관상 개선을 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지하철 공사 현장이 가게 앞을 점령해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건 상무지구 등 주요 상권도 마찬가지였다.

상무지구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이미선(61)씨는 "통행이 불편해 왕래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매출이 40%가량 하락했다"며 "이 근방을 보면 입대를 내놓은 상가가 많은데 최근에는 새로 입점하는 상인을 본 적이 없다. 공사라도 빨리 진행해 줘야 하는데 완공은 기약도 없고 피해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다"고 울상을 지었다.

▶ 2면에 계속
정상이나다운·윤준명 기자



지하철 공사 현장이 가게 앞을 점령해 통행에 불편을 느낀 시민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상무지구 등 주요 상권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나다운기자

광주시, 지역현안 도와줄 '팀광주' 의원 위촉한다

내달 2~3일 국회서 '광주의 날' 국회·정당과 새 협업모델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홍보관 운영

광주시가 국회·정당과 새로운 협업모델 마련에 나선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광주의 날'을 개최한다.

'국회, 광주의 날'은 2025년 지방자치시대 30주년을 앞두고 국회·정당-광주시간 새로운 협업모델과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기간 정당과 정책협약, '팀광주' 의원 위촉,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장 캐스퍼EV 탑승식, 광주정책 전시관 및 비엔날레·김치축제 홍보관 운영 등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우선 각 정당과 기후대응, 산업, 돌봄·복지, 주거·도시 분야에 대한 협력을 담은 정책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연다. 인공지능(AI), 자동차, 돌봄, 군공항 등 광주시 및 국가적 현안을 중심으로 △광주 AI 실증벨리 확산사업을 통한 미래 발전 전략 △자동차 부품 재제조 순환경제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 지원 △영호남 군공항 이전대책 등에 대한 정책토론의 시간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써줄 '팀광주' 의원 위촉식도 갖는다. 민군 통합공항 이전, 광주형일자리 고도화, 2045 탄소중립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

으로 지역 연고와 의정활동 방향 등을 고려해 '팀광주' 의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팀광주' 의원에게는 제2 지역구 국회의원 역할과 의미를 부여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행사 이튿날인 3일에는 강기정 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캐스퍼EV 탑승식을 갖는다. 강 시장과 우 의장은 앞서 지난 13일 국회 1호 캐스퍼EV 구매하는 '캐스퍼EV 차량 구매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행사기간 광주 정책전시관을 운영하며 광주의 AI, 미래모빌리티,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대표 정책을 전시한다. 또 광주비엔날레, 광주김치축제, 광주식품대전 등 'G-페스타 광주'를 국회에 알릴 예정이다. 전시관에는 새롭게 출시될 캐스퍼EV도 함께 전시된다.

노병하 기자 byeonha.no@jnilbo.com

중소기업애로, 현장에서 한번에!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스톱 중소기업 현장지원단

참여기관

- ① 전라남도
- ②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③ 광주지방국세청
- ④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⑤ 전남테크노파크
-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⑦ 근로복지공단

일시: 2024. 8. 29.(목) 14:00~16:00

장소: 여수상공회의소

문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4